

투데이 칼럼

변하는 탈북 동향

지난 8월 8일, 북한 주민 한 명이 한강하구 남북 중립 수역을 걸어서 남과 남쪽으로 귀순했다. 서해를 통한 북한 주민의 귀순은 약 1년 3개월 만이다.

북한 주민들의 해상 탈북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어왔지만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는 없다가 지난 해부터 다시 시작된 것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외교관, 해외 주재원, 유학생 등 이른바 엘리트 계층 탈북민 수가 최근 몇 년 새 가장 많았다. 북한 당국의 단속과 통제가 강화될수록 탈북 방식과 탈북 계층이 다양해지고 있다.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우리 군에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한 명은 썰물 때 물이 빠진 틈을 이용해 한강 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걸어서 건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중립 수역은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한 뒤 서해로 유입되는 강화도 북쪽 수역으로, 총 길이만 70km에 달하는 구간이다. 그러나 별도의 군사분계선이 없는 데다 폭이 가장 좁은 곳은 900m에 불과해 갯벌이 드러나는 썰물 때는 비교적 쉽게 걸어들 수 있다.

중립 수역의 지리적 특성과 함께 우리 군의 대응 방식 또한 북한 주민 귀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실제 군 소식통은 열상감시장비 등

으로 귀순 상황을 실시간 감시했고, 경고 사격이나 방송 없이 신호를 통해 은밀히 귀순을 유도했다고 전했다.

북한 역시 경계를 늦추진 않았겠지만 넓은 중립 수역 전체를 감시하기엔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육지를 이용한 탈북보다 적었지만 과거에도 해상 탈북은 꾸준히 이어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1987년 일가족 11명이 목선을 타고 탈북한 사건이다. 북한에 닦인 극심한 경제난으로 탈북민 수가 가파르게 늘어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도 해상 탈북 소식은 매체를 통해 종종 보도되곤 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그 수가 크게 줄었고,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급감한 전체 탈북민 수와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당국의 단속 의지와 물리적 통제, 그리고 코로나19 발생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10월, 목선을 타고 동해로 귀순한 탈북민들 역시 북한 내부의 삼엄한 감시 상황을 전한 바 있다.

북한 당국은 해상 탈북도 열두에 둔 듯 선박의 기를 양까지 제한하며 개인의 어업 활동을 철저히 통제했다고 한다. 심지어 대형 철선에 비해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목선의 경우 양식 작업용만 제외하고 모두 제거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서해 북방 한계선을 통해 북한 주민 일가족 9명이 넘어왔고, 5개월 뒤엔 동해로 4명이 귀순했다. 2020년부터 2년간 없던 해상 탈북이 다시 시작된 건데 몇 가지 사례만으로 해상 탈북 증가를 단연할 순 없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탈북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외교관, 해외 주재원, 유학생 등 이른바 엘리트 계층의 국내 입국이 늘어난 것도 최근 탈북의 특징 중 하나다.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도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땅을 밟았다. 다른 북한 주민보다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하는 외교관인 만큼 감시와 통제는 더욱 엄격하다.

그는 김정은 표창장을 받은 엘리트 외교관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불공정한 시스템에 회의감을 느꼈고, 끝내 자식을 위해 결단을 내렸다. 중요한 건 이처럼 탈북을 강행하려는 엘리트들이 더 있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 기간 국경을 봉쇄했다가 3년 7개월 만에 다시 열면서 해외 체류자들의 사상을 검증하겠다고 버든 일들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북한 당국의 삼엄한 감시와 통제에도 탈북을 막을 순 없었던 것이다. 가중된 경제난과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외부 정보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입국한 탈북민 수는 196명이다. 한 해 2천 명이 넘는 시기를 생각하면 현저하게 감소한 숫자다. 하지만 바늘구멍 만큼 좁아진 탈북의 길일지라도, 주민들의 의지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거란 목소리가 높다.



정복규  
논설위원

사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이중근(82) 부영그룹 회장이 최근 서울 마포구 케이타워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선거에서 선출됐다. 이 회장은 임기 4년 오는 10월 18일 임기를 마치는 김호일 노인회장을 이어 업무에 들어간다.

이중근 회장은 이날 선거에서 총 273명 투표수 중 187표를 얻어 19대 대한노인회장에 당선됐다. 후보로는 오재세(전 4선 국회의원)를 비롯해 이중근(현 부영그룹 회장), 김호일(현 대한노인회장), 이규택(전 4선 국회의원·이상 기호순) 등 모두 4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이 회장은 "책임이 무겁다"며 "우리 노인들이 노인다운 노인으로 존경받는 노인으로 후대를 생각하는 노인으로 열심히 살도록 하겠다"라며 "고령사회를 선도하는 존경받는 어르신단체 도약"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17대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을 지낸 이 회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에 퇴임한 바 있다.

한편 이건설(사)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장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제19대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당선에 일등 공신으로 활약했다.

이건설 회장은 이중근 회장과는 초면이었다. 어느 날 이중근 회장이 선거 관련 회의를 하던 과정에서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건설 회장을 모셔야 한다고 추천을 했고, 그것이 인연이 된 경우다.

이중근 회장은 전화로 이건설 회장에게 선거대책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줄 것으로 요청했다.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며 둘 사이의 선거연합은 완성된다.

4선 춘천시의회원의 경험을 살린 이건설 회장은 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거운동원 5명을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이중근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후방지원에 나서는 등 선거본부를 진두지휘했다.

송구진 사진전 '춤 스며들다'

'제4회 송구진 사진전 춤 스며들다'가 지난 7월 5일부터 11일까지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송 작가는 우리 무용의 대표적 춤인 승무와 살풀이, 한량춤, 창작무용을 근간으로 금파춤을 정립하고 재현하는 노력을 계속했다.

이번 작품을 통해 동작이 빠른 춤사위는 30의 1초로 촬영하여 춤 동작의 흔적을 보여줌으로써 추상성이 짙은 회화성을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했다. 무용수의 동작인 표정, 눈빛, 손짓, 장삼자락 등을 확대했다. 이를 재현한 고전작품과 창작무용을 발표하는 금파춤의 무대공연을 2011년부터 2024년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촬영한 작품을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다.

무용수의 우아한 춤과 장엄하고 웅장한 가락은 무아지경으로 빠지게 한다. 가락과함께 서터를 누르면서 무용수의 춤선에 따라 흥으로 스며든다.

춤은 시간예술, 공간예술이기에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감상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사진을 통해 선과 표정, 역동성, 분위기를 풀어보게 한다.

사단법인 금파춤 보존회는 한국 춤의 원형을 고스란히 간직 한 전주춤을 정립하고 후진을 양성했다. 이제 한국춤의 세계화는 새로운 경향으로 발전하고 형상화해야 한다.

전주시는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예향의 도시다. 전주를 대표하는 금파춤 보존회는 우리의 전통적인 춤과 세계각지의 춤을 함께 소통한다. 틀에 박힌 예술적 굴레를 벗어나 전통성과 창조성, 예술성, 보편성, 지역성을 아우르며 새로운 춤선을 표현하고 있다.

이번 사진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춤의 아름다움에 성령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이 전시가 춤추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기대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지지자들과 인사하는 오바마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각) 대선 경합주 중 한 곳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연설을 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오바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가리켜 "자존심과 돈, 지위에만 관심 있는 이기적인 억만장자"라고 비판하면서 목소리와 기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신해 평생 싸워온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호소했다.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하는 젤렌스키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오른쪽)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의 엘리제궁에서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휴전과 관련해 서방과 논의했다는 러시아 언론 보도를 부인하면서 마크롱 대통령과 러시아를 이기기 위한 '승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